

지역 소식통

정읍시, 고향사랑 기부제
담례품 공급업체 공개모집

정읍시가 2024년도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을 위한 담례품 공급업체를 공개모집한다.

공고 기간은 11월 23일부터 12월 8일까지이며, 신청은 12월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가능하다.

모집분야는 농축수산물, 제조품, 가공식품, 공예품, 관광·서비스, 유가증권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담례품을 기획해 제안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모집대상은 정읍시에 사업장을 두고 담례품으로 공급가능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적시에 생산·공급할 수 있는 업체다.

신청은 시청 본관 1층에 위치한 시민소통실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선정은 시 담례품선정위원회에서 △사업체의 운영역량 △지역 연계성 △품질관리 등 정량적 평가 △사업계획 등 정성적 평가 등을 거쳐 이뤄진다.

공급업체로 선정되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정읍 고향사랑 기부자들에게 담례품을 제공하게 된다.

이학수 시장은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축수산물 등 양질의 담례품 확보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견인에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오늘부터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고창군은 2023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직불금(이하 공익직불금)을 29일부터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1만3072농가이며 지급액은 총 372억원 규모이다.

올해 시행 4년차인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요건 중 2017~2019년 3년 중 1회 이상 쌀·밭·조경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여야 한다는 법률조항이 삭제되어 지난해 대비하여 1,100여농가, 12억원이 증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고향사랑기부제 앞장

자발적인 민간협 출범 전국 최초 31개 사회단체 참여

부안군은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28일 부안군청 회의실에서 자발적 민간협의체인 부안군 고향사랑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부안지역 31개 사회단체장이 참여했으며 협의회장인 권명식 새마을운동 부안군지회장, 부회장에 전동일 부안군체육회·박영숙 대한적십자봉사회 부안지구협의회장, 재무에 구낙서 전국이동장연합회 부안군지부장이 취임했다.



부안군은 28일 군청 회의실에서 자발적 민간협의체인 부안군 고향사랑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발대식을 가졌다.

협의체는 고향사랑기부제 동참뿐만 아니라 부안군 5만 인구 사수를 위해 부안군 1군민 잃어버린 27가족 찾기 운동을 전개하고 군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2023년 목표 달성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권명식 협의회장은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과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으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협의체가 출범했다"며 "군과 협의체가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을 위한 자발적인 민간협의체 출범은 부안이 전국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안의 미래 100년을 위한 영일한 동반자로서 협의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더욱 긴밀한 협력기반으로 활발히 활동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10만원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 16.5%)와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담례품을 받을 수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내년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오는 12월 29일까지 총 6517명

정읍시는 어르신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오는 12월 29일까지 '2024년 노인일자리·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2024년도 노인일자리 배정인원은 총 6517명으로 올해 대비 1066명이 증가했다.

모집분야는 승강장 및 공공시설환경 정비 등 공익형 4704명, 금융기관업무 지원·공공기관행정지원 등 사회서비스형 1448명, 시니어시절케어 등 시장형 285명, 취업알선형 80명 등이다.

신청대상은 공익형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가 원칙이며, 사회서비스형은 65세 이상(일부유형 60세 이상), 시장형·취업알선형은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1~5등급, 인지기원등급) 등은 참여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신청은 희망하는 수행기관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을 지참해 방문신청 하면 된다.

수행기관은 정읍시니어클럽(☎535-5101), 대한노인회정읍시지회(☎535-1611), 정읍시노인복지관(☎538-3608), 정읍시북부노인복지관(☎571-9053), 섬진강댐노인복지관(☎531-0063) 등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수행기관과 시청 노인장애인과(☎ 539-5504~5506)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수성동 주민센터 이전 업무개시

정읍시 수성동 주민센터(동장 김행숙)는 지난 27일 청사를 수성동 행복주택 내로 이전하고 업무를 개시했다. 1만 6400여명, 8400여세대 주민들의 민원 업무와 복지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기존 임시청사는 좁은 시설과 부족한 주차 공간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신청사는 도시재생뉴딜사업(공기업 제안형)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의 일환으로 지난 2021년부터 공사를 진행해왔다. 신청사는 연면적 9339㎡에 지상 18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1층에는 수성동 주민센터를 비롯해 상가 4개소, 3층에는 회의실과 다목적 컨벤션 홀, 4~18층은 행복주택 98세대가 마련됐다. 김행숙 동장은 "신청사 이전을 통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주민들과 더 많이 소통하며 친절하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신청사 개소식은 오는 12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최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수성동 주민센터(동장 김행숙)는 지난 27일 청사를 수성동 행복주택 내로 이전하고 업무를 개시했다.

정읍시, '반려동물등록비' 지원

유실·유기 동물 발생 예방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시행

정읍시는 반려견 보유 가구 증가에 따른 유실·유기 동물 발생 예방과 동물등록률 증가를 위해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시행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소유자나 동물의 변경사항이 발생했음에도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는 동물등록 대행업체가 없는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반려 가구를 위한 정책으로, 마을별로 5마리 이상 동물등록을 할 경우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대행업체에서 반려견 소유주의 집으로 직접 방문해 동물을 등록해주는 정책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부터 동물등록비 3만원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현

제까지 동물등록비 지원 건수는 945건으로, 지금까지 등록된 반려동물 수는 총 5887건으로 나타났다.

지원 대상은 동물 판매업 등 반려동물 관련 업체 소유 반려견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외 반려동물을 소유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반려동물 등록비 대행업체인 지역 내 동물 병원에서 동물등록비 지원 사업 신청 후 동물등록 시술만 하면 된다.

이학수 시장은 "동물등록비 지원 사업을 통해 반려동물 등록률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도 시행 중이오니 동물등록비 지원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가 28일 6.25전쟁 유공자인 고(故) 이원진 중사의 자녀 이순열(65)씨에게 화랑 무공훈장을 전수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부안군, 6·25전쟁 유공자 화랑무공훈장 전수

6.25전쟁 당시 공로가 인정돼 무공훈장 수여가 결정됐지만, 70여년간 수여받지 못한 무공훈장이 유족(자녀 이순열)에게 주어졌다.

권익현 부안군수가 6.25전쟁 유공자인 고(故) 이원진 중사의 자녀 이순열(65)씨에게 화랑 무공훈장을 전수했다. 전수식은 28일 부안군청에서 열렸다.

고인은 6.25전쟁 당시 제1신병 보충대대 소속으로 공적을 인정받아 1953년 6월 25일 무공훈장 서훈대상자로 결정됐으나 훈장을 전수받지 못했다. 고인은 월남전 참전 등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참군인의 표상이었다.

그러나 작고(90년 7월)시까지 어렵게도 전수되지 못한 훈장은 늦게나마 무

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을 통해 자녀 이순열씨에게 전수될 수 있었다.

부친의 훈장을 수령한 자녀 이순열씨는 "아버님의 훈장을 소중히 간직하겠다며, 훈장을 찾아주시신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고(故) 이원진 중사의 유족에게 깊은 감사와 고마움을 전하였으며, "6.25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의 숭고한 희생정신으로 현재의 우리가 있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보훈가족을 위한 맞춤형 보훈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훈장 전수는 국방부와 육군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2019년부터 추진중인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에 따른 것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